

수계끼라 전해오고 있다. 싸움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게 되자 공략을 일단 중지하고 무사들이 성을 포위하여 식량이 성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급을 차단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삼개월 동안에 성내의 식량은 바닥이 나서 기아에 허덕이는 틈을 타서 총공격, 삼만칠천명 전원이 몰살 당하는 참극으로 일본 기독교 순교사의 종막을 고하였다.

남은 신도들은 지하로 들어가 250년간의 어둠과도 기나긴 믿음의 가시밭길을 지켜왔다.

「나가사키의 중」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항복치 않으면 제이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는 비행기 전단을 매일같이 구주지방 방방곡곡에 뿌려댔다.

1945년 8월 9일 아침 10시 좀 지나 B29세대가 특별작전 명령을 받고 구주 상공에 나타났다. 명령받은 목표 지점은 고구라시였다. 그날따라 안개와 구름이 너무 많이 깔려 목표 지점을 발견키 어려워 구마모도로 목표 지점을 바꾸도록 명령 받고 구마모도로 갔으나 이곳 역시 목표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3차 명령은 나가사키였으나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아 기지로 회항하려고 해변을 거의 빠져나갈 무렵 실오라기 만큼 가느다란 구름사이로 나가사키 제강소를 발견하자 즉각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그 원자 폭탄은 지면으로 떨어져 내려오다 500m 상공에서 폭발하였는데 그 폭발 중심 지점은 동양 최대의 성당이었던 우라가미 교회였다.

250년의 기나긴 암흑 시기를 견디다가 자유를 얻은 1895년 후레노 신부의 설계와 시공으로 우라가미 산동네에 새 성전을 착공케 되었던 것이다. 성전 공사로 과로에 지쳐 후레노 신부는 타계하고 라게 신부가 공사를 속행하여 1914년 드디어 헌당식을 올렸다.

원폭으로 우라가미 교회와 그 일대의 마을이 무너질 때 두명의 신부와 20여명의 신도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였고 신도 만이천명중에 팔천오백명이 폭사하였다.

나가사키 시민 칠만오천명이 사망하고 칠만오천명은 원자병으로 거의 다 죽어갔다.

우라가미 교회의 좌석은 육천석이었으며 전후에 다시 신축한 새교회도 이전교회와 꼭같은 설계로

재전하여 육천석의 좌석을 마련하였다.

우라가미 교회 터 원폭 투하 중심점에는 원폭 기념탑이 서게 되고 그 일대는 평화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라가미 교회의 장로격인 구주 의대의 의학박사이며 「나가사키의 중」의 저자였던 나가이 선생은 의대 병원 방공호에서 원자탄에 감염되어 원자병으로 몇 해 동안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전쟁이 끝나고 아내를 잃고 우라가미 교회 옆에 잣더미가 되어버린 옛 집터를 장모와 같이 찾아온 나가이 선생은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보던 중 장모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우리교회와 내 딸을 앗아가시다니!” 원망조의 한탄을 할때 “장모님 이것은 우리 일본인이 저지른 너무 큰 죄악을 우라가미 교회가 대속키 위한 속죄 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시려는것 입니다.

짧막한 대화를 나눈 다음 장모와 사위 두사람은 하나님께 곡한 기도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 보급자리를 위한 삽질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은 교우들을 모아 신부들과 함께 새교회를 이룩하고 타다남은 교회중 “나가사키의 중”을 원폭기념관에 안치하여 후세대 신도들에게 전하여 산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 기행문

서구의 평화 운동의 편모

박 영 속

나는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우리교단과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 서독의 서남부교회협의회의 초청으로 그나라와 서서에서 열린 여러회의에 총회의 총무와 함께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다.

독일에서 이 모임들이 열리고 있는 동안 제네바에서는 신형 무기인 퍼싱 II와 크루즈미사일을 구라파지역에 572기를 증설하는 문제에 관련된 미 소양국의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그 곳 전지역에서는 평화시위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572기중에서 220기가 서독의 배치 예정이어서 독일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날이면 날마다 방방곡곡에서



평화와 생명을 위한 각가지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내가 참석한 첫번째 모임이었던 십개국의 여성회의 대표일행은 ^{10월 8}십일이일 주일 켄진겐시의 한교회의 저녁예배에 초청을 받았었다. 「생명을 위한 기원 행진」의 대열이 그저녁 그지역에 도착해서 드리는 특별예배였다. 그곳에는 배낭을 짊어진 간편한 옷차림의 수 많은 남녀노소의 무리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운집해 있었다. 그들 모두는 백색스카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아기 기저귀 이란다. 이 기원행진은 구월십팔일에 첫 도시를 출발해서 ^{10월 21}십일팔일에 마지막 도²¹시에 도착하는 21일간에 21개도²¹를 행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하나의 도시에 도착할때마다 그 고장의 시민들에게 그들의 뜻을 전하고 서명을 받는 한편 행렬에 가담케 하여 다른 도²¹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서명을 제네바 회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가담으로 이어진 이 행진은 놀랍게도 하나의 단순한 젊은 어머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들 일행과 만났때가 15일째 되던 날인데 그때 이미 큰 운동으로서 사회의 ^{10월 15}여론을 일으키고 있었다.

십일십칠일에는 다른 고장에서 열리고 있는 평

화시위를 참관하는 기회가 있었다. 아침부터 종일 계속된 이 행사는 계몽을 위한 자료보급을 비롯해서 핵으로 인한 일류멸종의 위협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과 피투성이의 옷 그리고 백색탈등이 동원되었다. 저녁이 되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운동정신을 과시하며 끝마쳤다.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날에 그친것이 아니라 내가 독일을 떠난 10월 28일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10월 26일에는 인간사슬이 100Km나 이어지는 대대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이 대열에는 이름이 알려진 전수상이 포함된 유명인사들도 끼어 있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반응이 없게 되자 드디어 미군부대앞의 행길에 누워서 항거하는 불법시위를 벌리다가 경찰차에 실려갔다는 보도가 들리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가두데모와 가두서명운동이 끊이지 않고 전개되고 있었는데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며 모든 비용은 참가자 개개인이 부담하고 누가 시작한 운동이거나 간에 뜻만 좋으면 가담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들의 수준을 짐작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행렬을 통제할만한 경찰력이

동원되기도 하였고 정보기관의 조사가 항상 뒤 따르고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가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제재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독일에는 이미 6000 개의 핵탄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핵무기가 그 나라에 심어지는 지난날에 그렇게 무심하고 잠잠했던 그들이 성능이 높다고는 하나 불과 220기정도에 왜 이렇게 쑥셔놓은 벌집의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것은 흥미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상황의 변동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서 라고 한다. 미소의 대립이 완화 된것도 안보의 위협이 감소된것도 아니며 전쟁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핵무기의 증강을 통해서 평화는 보장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힘의 우세를 통한 안보는 사실상 안보의 위협을 크게 할뿐이라는 생각이다. 군사균형을 통한 평화유지는 계속적인 군비경쟁을 하게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평화의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칼 커. ~~하~~이젠카는 「두개의 서로 불신하고 있는 적대국가는 항상 상대방보다 강해야 안전을 느끼는 법이다. 그런데 양편이 모두 상대방보다 강해야 한다는 조건은 영원히 이룩될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아무리 군사력이 강대하고 초현대적 무기를 개발해도 핵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나라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량 살상무기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의 파멸만 가져 올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전쟁은 우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되어서 터지는 것이므로 준비과정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C. W. 밀스의 말대로 「아마도 3 차전쟁의 원인은 그 준비자체가 될것이다」라고 한말이 바른 판단이라면 전쟁준비를 막는 것이 곧 전쟁을 막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계의 생명을 아끼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준비를 위해 세계가 매분마다 100만불을 소모하고 있는 엄청난 군사비의 1000분의 1 만이라도 할애하면 매시간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1500 명의 인명을 살려낼수 있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운동은 이러한 막대한 자원



을 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기 위해 쓰느냐고 묻고 있다.

아름든 지금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인류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불길 같이 솟고 있다. 문제는 위협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공룡과도 같은 힘의 주체자들의 양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제네바회의에서는 구라파지역의 성난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최신무기를 양대진영이 보복적으로 ~~다루~~워 배치키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이제는 한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등을 핵사정거리 안에 완전히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핵폭탄의 세례를 받을지도 모르는 우리국민의 핵무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실정을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러나고 있는 평화운동은 전쟁반대, 핵반대, 또는 군축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국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치열한 대치관계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평

화운동을 단번에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라고 해서 생명을 지키는 행열에서 벗어나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의 평화파괴의 요인은 비단 전쟁만이 아니다. 인구폭증, 잘못된 발전문제, 빈부의 격차, 권력의 편중, 또는 괴물과도 같은 다국적기업의 횡포는 날로 인간성을 말살하고 드디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세계의 양심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평화와 정의는 쌍둥이로서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의 평화운동은 여성해방 또는 약자해방운동과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번져가고 있다. 평화의 문제는 오늘의 기독교 아니 인간에게 부과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지고 있으며 신앙의 고백으로서 참여하고 있어 그 힘이 강하다.

이러한 세계의 안목으로 볼때 80년대 ^{이 동양의 변화} 초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가 전개하고 있는 생명문화운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 운동은 오늘의 문화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역사의 추세를 꺾고 생명의 문화로 이끌어 가려는 노력의 일단이

다.

독일과 서서에서 열린 회의에서의 모아진 의견도 마찬가지였으나 지난 3월 21일에서 사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 북미교회협의회에서도 오늘날 세계에는 평화를 추구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선한 힘을 어느곳 어느 상황에서도 소수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악의 힘은 거대하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통해 되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함께 대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의 교회들은 자국의 이익과 정책에도 초연할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건설할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문한바는 과연 우리에게 ^{고충}과 자기죽음이 요구되는 새역사창조의 역군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기를 꺾지 않고 생명과 평화의 역군은 될수는 없는 것이기에 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매한자와 약한자들을 두 ^러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 한다. ■

